

## 이도업 교수의 글을 읽고

이 효 절\*

이 글은 요약문이므로 논평에 애로점이 있다. 요약문은 논지만 있을 뿐 논거와 논술의 구체적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평이 글쓴이의 충분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논지를 왜곡할 위험이 있음을 밝힌다. 본고는 화엄교학의 정토사상을 규명함에 있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첫째, 정토사상의 주요 개념인 淨土, 佛身, 念佛, 彌陀淨土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 화엄경과 정토삼부경에서 각각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미타정토사상이 왜 화엄대경에는 나오지 않고 소위 貞元本이라 일컫는 『40화엄경』에서만 나오고 있는가? 셋째, 화엄교가들은 사상내용면에서는 여전히 화엄사상을 고수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왜 정토신앙을 취하는가?

첫번째 질문 속의 淨土義에 대해서는 다시 華藏淨土가 건립된 이유, 蓮華藏세계의 위치, 蓮華淨土의 莊嚴, 華藏淨土에의 往生因에 대해 주로 화엄경의 관점에서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정토사상과 비교한다. 그 결론은 ①건립 원인이 같고 ②정토의 위치는 다르며 ③장엄은 일치하고 ④왕생인은 자력과 타력인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佛身義에 대해서는 명칭은 다르지만 ①願行을 닦아 부처가 된 점은 같으나 ②두 부처가 不二한 것(이것은 다만 화엄사상적 견지에서

본 견해이지 정토사상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이라 결론짓는다. 念佛義에 대해서는 화엄에서는 止觀念佛이나 정토에서는 稱名念佛로서 차이가 있다. 彌陀淨土義의 항목에서는 미타정토에 대한 언급이 화엄대경에는 없고 오직 「40화엄경」에서만 나오는데, 이것은 동진시대의 번역가가 당시에 유행한 정토사상을 편입시킨 결과라 하여 둘째 질문의 답을 여기서 내리고 있다.

그 다음 본격적인 화엄사상 출현 전의 정토사상을 「十住毘婆娑論」, 「易行品」에 나타난 龍樹의 정토사상, 「往生論」을 쓴 世親의 사상을 살피고 이어서 화엄교가인 智儼과 澄觀, 그리고 宗密의 견해를 간략히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義相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해동 화엄종 초조인 의상의 정토사상을 언급하면서 사상 내용적으로 화엄교가이면서 신앙적으로는 정토신앙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신앙과 교학의 불일치라는 측면에서 화엄초조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러한 논지에 대해 몇 가지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전체적 논지에 대해서 논자는 화엄경 그 자체에는 정토사상 없으며 화엄사상에 정토신앙을 끌어들이는 것은 화엄교가들의 견해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토사상이 화엄사상과 연결되는 부분이 화엄대경에는 없고 오직 「40화엄경」에만 있는데 이것도 당시 번역가의 자의적 편입에 의거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점과 마지막 결론부분에 의상이 화엄사상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해동화엄종 초조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정토종 혹은 정토신앙은 龍樹가 이미 그 대중적 실천성에 주목하여 易行道로 파악한 이래로 중국의 거의 모든 종파가 정토사상을 자기 종파의 실천론에 접목시키려고 했다. 도작, 담란 등에 의해 정토종

이 대승의 본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독립적 종파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론적으로 앞선 다른 종파에서 끌어들이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타력신앙성이 강한 정토사상 그 자체는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없었지만, 타 종파의 여러 이론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시킨 이론적 성과에 정토신앙이 흡수되면서 역설적으로 도리어 정토종이 당당한 종파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토사상 자체의 성격과 정토종의 발전과정, 그리고 중국의 모든 종파가 정토사상을 습합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화엄종(아마 화엄경적 화엄사상)의 순수한 정통성을 고수하려는 논자의 입장은 좀더 유연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의 화엄종 성립 자체가 당시까지 발전된 불교사상의 종합적 결과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엄종의 정통적 순수성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다. 또 설사 논자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해도, 화엄경에서 말하는 연화장 세계를 미리 '연화정토'라고 앞질러 정의한 것은 화엄교가의 입장을 화엄경에 삽입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논자 스스로 화엄경 그 자체의 사상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이고 있다. 淨土義를 비교 분석하면서 연화장세계가 건립된 이유에 정토사상적 발상이 들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사실과, 연화장세계에 증입할 수 있는 圓行道 역시 정토사상의 반영된 願力所成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정토사상과 화엄경의 관계가 이제까지 거의 용수의 「십주비바사론」(화엄경의 十地品을 주석)에 나오는 易行道(정토신앙)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화엄사상과 정토사상의 연결점이 화엄교학가의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화엄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이 「십주비바사론」 이외에도 더 있고 그 사례

를 제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